

PIT STOP

콘텐츠 기획서 & 호스트 가이드

 촬영일 2026년 2월 22일 (일)	 호스트 김나강 × 석예나
---	--

Creatorhood

PART 1 | 시리즈 개요

Pit Stop은 어떤 콘텐츠인가

F1 경주에서 '피트스톱'은 잠깐 멈추는 시간이지만, 사실 끝까지 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에요. 연료를 채우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다시 전속력으로 레이스에 합류하는 것처럼—

Pit Stop은 하루를 달리다 잠깐 멈춰 충전하는 카페 순간을 포착한, 두 20대 호스트의 짧고 솔직한 토크 시리즈입니다.

테이크아웃 커피를 기다리는 2분,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가 나오기 전 수다떠는 5분.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오가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은 콘텐츠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가지

- **피트스톱 컨셉** — 카페라는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충전과 멈춤'의 의미를 담은 공간
- **숏폼 토크** — 길게 늘어지지 않고, 커피 받는 시간 / 기다리는 시간 / 야외에서 마시는 시간 동안 딱 끝나는 밀도 있는 대화

시리즈 포맷

항목	내용
영상 길이	45~60초 (숏폼 / Reels · Shorts)
플랫폼	Instagram Reels · YouTube Shorts
업로드 주기	1회 촬영(3~4 카페) → 3~4편 분량 확보 후 순차 업로드
촬영 환경	테이크아웃 가능 / 외부 대기 공간 / 야외 좌석 있는 카페 우선

PART 2 | 에피소드 구조 & 주제 가이드

에피소드당 구조

정해진 스크립트 없이 대화하되, 아래 3단계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주세요.

단계	타이밍	내용
OPEN	0~15초	오늘 어느 카페인지 드러내기 + 커피 주문하는 장면. 배경이 자연스럽게 세팅되는 시간. * 매 촬영마다 시그니처로 인트로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TALK	15초~1분	“이런 거 있잖아—” 하고 화두 하나 던진 다음, 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 담기. 의견 차이, 공감, 반전이 있으면 더 좋아요.
CLOSE	마지막 10초	컵 내려놓기, 자리에서 일어나기 등 자연스러운 액션으로 마무리. 말로 끝내지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숏폼이 끝나는 연출입니다.

OPEN과 CLOSE는 ‘행동’으로 처리할 거예요. 말보다 장면이 훨씬 자연스럽게, 편집도 쉬워집니다.

주제 방향 — 대학생의 일상 라이프스타일

Pit Stop의 주제는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 국한되지 않아요.

나강님, 예나님 두 호스트가 지금 20대 대학생으로서 실제로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잡습니다.

기준은 딱 이 두 가지:

“이 카페에 앉아 친한 친구랑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인가?”

“커피를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혹은 테이크아웃 전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할 것”

주제 예시

카테고리	예시 소주제
돈 & 소비	요즘 어디에 돈 가장 많이 씀? / 이건 무조건 투자해야 한다 / 알바 vs 과외

	vs 공모전
시간 & 루틴	아침형 인간 되고 싶은데 안 되는 현실 / 시험기간에 어떻게 무너지나 / 효율 있는 vs 여유 있는 하루
사람 & 관계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건가? / 학과 친구 vs 동아리 친구 / 요즘 사람 사귀기 어려운 이유
진로 & 정체성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상한 건가? / 스펙 쌓기 vs 경험 쌓기 /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 / 대외활동
문화 & 트렌드	요즘 뭐에 꽂혀 있어? / SNS에서 요즘 자주 보이는 거에 대한 솔직 의견 / 밸런스게임 등
운동 & 몸	운동 뭐하고 있어? / 살빼려고 vs 기분전환으로 / 요즘 대학생들 왜 다 운동해? / 식단?

PART 3 | Ep.1 + 티저 세부 기획 (2/22 촬영)

첫 번째 촬영 개요

항목	내용
촬영일	2026년 2월 22일 (일)
목표 확보분	티저 1편 + Ep.1~4 (총 3~4편, 카페 3~4군데)
공개 순서	티저 → Ep.1 → Ep.2 → Ep.3 (순차 업로드)
카페 기준	테이크아웃 가능 OR 외부 대기 공간 OR 야외 테이블 있는 곳
의상 준비	각자 2가지 룩 준비 → 카페 2곳마다 같은 룩으로 촬영

티저 기획

촬영 장소: Upside Coffee, 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3 1층 업사이드)

목표 길이: 30~40초 | AI + 실제 촬영 혼합

컨셉 — 두 개의 피트스톱을 교차로 보여주는 연출

- **미니카 레이어** — F1 미니카가 테이블(피트 레인)에 들어오고, 수리 완료 후 다시 떠난다. AI 로 제작 예정.
- **사람 레이어** — 두 에디터가 카페에 잠깐 앉았다가 진동벨 울리면 다시 나간다.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이 피트스톱. 실제 촬영.

두 레이어는 같은 테이블을 공유한다. 에디터의 몸이 테이블을 가리는 순간을 이용해 미니카 ↔ 진동벨을 자연스럽게 스왑한다.

샷 시퀀스

#	방식	내용	포인트
#1	AI	확대된 빈 테이블 위로 미니카 진입	차의 피트스톱. 테이블 = 피트 레인
#2	촬영	줌아웃 → 두 에디터 착석 / 앉는 순간 미니카→진동벨 스왑	사람의 피트스톱 시작. 스왑 타이밍 #1
#3	촬영	두 사람 대화	시리즈 톤앤매너 + 숏폼 토크 컨셉
#4	촬영	진동벨 울림 → 두 에디터 이탈	피트스톱 종료. 다시 달리러
#5	촬영	이탈 중 진동벨→미니카 스왑 / 줌인	스왑 타이밍 #2. 미니카 레이어 복귀
#6	AI	미니카 출발 + Pit Stop 로고	차도 떠난다. 오프닝 타이틀

소품 스왑 — 호스트가 알아야 할 것

이 티저의 핵심 연출은 에디터의 몸이 테이블을 가리는 순간에 소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AI로 들어가는 부분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하게 막으려 하면 오히려 티가 나요. 자연스럽게 주문 후 자리에 앉는 장면, 대화하는 장면, 진동벨이 울려 다시 받으러가는 장면을 PD님 디

렉팅에 맞춰 찍을 예정입니다.

스왑 타이밍	가이드
스왑 #1 (#2 착석 시)	의자 당겨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테이블 앞으로 오게 하기. 앉을 때 테이블 위 보지 말고 서로 눈 맞추며 앉기.
스왑 #2 (#5 이탈 시)	일어서고 바로 나가지 말고, 가방 챙기거나 한 마디 나누면서 1~2초 자연스럽게 테이블 앞에 머물기.

대화 톤 가이드 (#3)

예고편 느낌 — 확정된 답을 내놓지 않고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화.

스크립트는 확정이 아니고, 음성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래 구조 참고.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진짜 ○○할 때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

“아 맞아 나도 요즘 그런 거 계속 생각하는데”

“다음에 제대로 얘기해봐야겠다” → 에피소드 예고

나레이션 가이드 (자연스럽게 변형해서 사용)

“달리다 들어간 카페에 잠깐 멈춰서 테이크아웃 기다리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

“Pit Stop”

Ep.1 기획

Ep.1 추천 주제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돈”

또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상한 건가?”

첫 에피소드니까 두 호스트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보는 사람도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가 나오는 주제가 좋아요.

대안 후보:

- “친구가 많은 게 진짜 좋은 건가?” — 공감 포인트 강함
- 밸런스게임: “카페 공부 vs 도서관 공부” — 가볍게 시작하기 좋음
- “OOO 에서 알바 해봤어? 솔직 후기” — 대학생 공통 경험

Ep.1 촬영 체크리스트

- ☐ 카메라 앵글은 두 사람이 모두 잘 들어오는 사이드 각도 (정면 X,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 ☐ 커피 주문 → 기다리는 동안 → 받는 순간 → 자리 잡고 대화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 ☐ 각 카페에서 주요 토크 + 티저용 컷 + 외관·음료 B-roll 확보
- ☐ 호스트 각자 음료 들고 있는 개인 컷 1 장씩 (썸네일 소재용)
- ☐ 말이 막히거나 웃음이 터져도 OK — 자연스러운 반응이 편집 포인트가 됩니다

PART 4 | 촬영 당일 운영 가이드

하루 촬영 스케줄 (예시)

시간대	내용
점심 집합 (12시 콜타임)	집결, 의상 확인, 당일 카페 루트 최종 확정 (현재 예상 12시 경)
티저 촬영	티저 촬영 장소 : 업사이드 커피
카페 1·2 촬영	첫 번째 룩으로 2곳 촬영 — Ep.1 + Ep.2 *EP1 테이크아웃 / EP2 테이크아웃 or 야외 앉아서
중간 피드백	중간 촬영 피드백
카페 3·4 촬영	두 번째 룩으로 2곳 촬영 — Ep.3 + Ep.4 *EP3 테이크아웃 / EP4 앉아서

의상 & 룩 관리

룩 A: 카페 1 + 카페 2 / 룩 B: 카페 3 + 카페 4

각자 당일 입고 오는 옷 외에 여유분 1벌씩 준비. (가능하면 러닝이나 같이 활동적인거 하고 온 느낌) 둘이 서로 컨러·무드가 어울리는지 집합 시 미리 맞춰보세요.

- 완전히 같은 스타일 X — 각자의 개성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톤
- 카페 분위기와 의상 무드가 크게 튀지 않으면 됩니다
- 너무 나들이룩이나 데이트룩보다는 편한 옷이 좋음! + 여분의 옷은 오히려 둘이 러닝하고 온 컨셉으로 찍은 컨셉으로.

카페 선택 기준

업사이드커피 외에 3군데 정도 더 방문할 예정이라 미리 찾아보면 좋습니다.

- 테이크아웃 또는 외부 픽업 카운터 있는 곳 (커피 받는 장면 촬영 가능)
- 야외 테이블 or 외부 대기 공간 (거리 소음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
- 너무 붐비지 않은 곳 (대화 녹음 퀄리티 고려)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최고

스크립트가 없는 대신, 촬영 전 아래 내용만 준비해서 컨택하면 됩니다.

-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3~4 개 생각해오기

그 외에는 촬영날이 카페투어하는 날로 재밌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에서 살릴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과 대화니까, 사전에 잡은 주제 외에는 편한 바이브를 유지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PART 5 | 시리즈 전체 방향성 (참고용)

매 촬영마다 두 분께 카페투어할 비용을 콘텐츠 제작비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의 Pit Stop

Ep.1 촬영을 통해 포맷과 케미를 확인한 뒤, 이후 회차는 아래 예시와 같은 방향으로 주요한 주제를 미리 잡고 확장해나갑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듯, 예시 주제는 예시 주제일 뿐 같이 정해보아요.

회차	주제	포인트
Ep.1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돈 /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이상한 건가	호스트 소개 + 시리즈 첫인상
Ep.2	밸런스게임: 대학생 편	가볍고 재밌는 의견 대결
Ep.3	사람 사귀기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	공감 포인트 강한 주제

Pit Stop이 만들어가는 것

- 20 대 대학생의 솔직한 일상과 고민을 담는 CH MAG 만의 토크 시리즈

- 서울 곳곳의 카페들을 자연스럽게 큐레이션
- 짧고 솔직한 대화가 쌓이면서 두 호스트의 캐릭터와 땃층이 형성되는 구조

재밋게 합시다!

Creatorhood / 2026.02